

# 서울시내 대학생의 통과의례와 음식에 관한 인식조사 1보-백일, 돌과 혼례

김미정<sup>†</sup> · 윤혜현<sup>1</sup>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경희대학교 조리과학과<sup>1</sup>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of the passage rites and  
foods-one hundredth birthday and the first birthday rites and wedding ceremony

Mee-Jeong Kim<sup>†</sup>, Hye Hyun Yoon<sup>1</sup>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okmin University  
<sup>1</sup>Dept. Culinary Science and Arts, Kyunghee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ought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about the birth rites and wedding ceremony and their foods. Among 524 students who were surveyed, 299 students answered that the meaning of the first birthday rites was for special memory, followed by the child's future and family's harmonies. 248 desired birth rites to remain unchanged and 150 desired extravagance and waste to be reduced. Regarding wedding ceremony, 328 answered that changes are necessary in wedding ceremony gifts. Next, process in wedding ceremony and bridegroom's gift box should be changed. Most of the students didn't know clearly the foods of the one hundredth birthday and the first birthday; nevertheless they considered the birth rites to be necessary. Regarding wedding ceremony, half of the students knew the process and half didn't. Two hundred students answered they knew ordinarily about the foods of wedding ceremon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metown about foods of wedding ceremony. In parents' religions, there were no differences about gifts & foods offered by the bride. The Buddhist students knew well about the birth rites' foods and considered birth rites to be necessary. The correlation of parents' work and student's major and passage rites showed that professional parents knew well about birth rites' foods but religious believers didn't know well. Students majoring in natural science were not concerned with birth rites and thought that they were unnecessary and they didn't know about wedding ceremony process and foods. Knowledge about birth rites increased with increasing number of siblings. Large families were interested in birth rites and knew well about the wedding process, wedding ceremony foods and gifts & foods offered by the bride.

Key words : passage rites, one hundredth birthday, the first birthday rites, marriage ceremony, undergraduate students

## 1.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절과 명절에 맞게 시식과

절식을 먹어왔고(김기숙 등 1999) 한 인간은 태어나서 다음세상을 갈 때까지 그 때에 맞는 음식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왔다. 통과의례란 인간이 한 생명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 열 달을 채워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중에 거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말하며 사후에도 이 믿음은 계속되어 죽은 혼을 불러 예를 갖추는 제례도 통과의례이다. 즉 인간이 태어나면 거치게 되는 삼칠일, 백일, 돌, 혼례, 상례, 제례 등을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의식에서 반드시 상을

Corresponding author: Mee-Jeong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ookmin University, 861-1 Jeongneung-dong, Seongbuk-gu, Seoul 137-702, Korea  
Tel:82-2-910-5469  
Fax:82-2-911-4771  
E-mail:skstella@kookmin.ac.kr

차려 행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과례의 상차림은 세월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와 간소화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경향도 있다(Kim IO과 Ahn HS 2003, Kim JM 등 2003). 이러한 통과례에 대한 행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형태가 변하고 사고방식이나 종교의 영향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의 전통의식과 음식은 점차 쇠퇴되어가고 있다(Hong NY 등 2002, Jung BM 2005, Lee HG와 Oh MY 1995). 재미 한인주부들의 한국명절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Sim YJ과 Kim JS(1998)의 연구에서 명절음식의 관심도는 77.1%가 관심이 있었고 70.5%가 명절음식의 상차림이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명절음식은 설이나 추석을 제외하고는 차리는 정도가 낮았다.

Sim YJ 등(1999)의 미국 뉴욕 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한국 전통음식문화에 관한 의식조사를 보면 의례음식과 상차림은 57.9%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78%가 상차림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차림은 생일(66.8%), 돌상(43.5%), 백일 상(42.4%), 혼례 폐백 상(21.4%), 제사상차림(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돌상에는 60%가 평소보다 음식을 더 준비하여 축하해 주었다고 답하였다. Yoon US(1995)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와 제주도 일부대학생들의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는 남녀 및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76.11%가 명절음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명절 음식을 차리는 현황으로는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Yoon US와 Song TH(1995)의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일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9.8%가 향토음식을 거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향토음식의 계승여부에 있어서는 96.5%가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전통의 식문화에 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대학생의 통과례에 대한 인식, 특히 백일, 돌 그리고 혼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분석한 논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대학생들의 통과례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서 식문화 전승에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과례 중 백일, 돌과 같은 출생의례

와 혼례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문화를 전수하고 좋은 점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과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서울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공별로 524명의 다양한 학생을 택하여 2006년 3월에서 5월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학생은 식문화 등 교양과목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 540부를 배포하였으나 이중 일부항목에 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52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과 방법

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돌, 백일에 대한 의식, 혼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은 나이, 부모님의 출생지, 부모와 학생의 종교, 학생의 전공, 가족사항, 부모님의 직업, 형제 수, 가족 수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과례에 대한 의식은 돌의 의미, 돌과 백일 상을 받았는 지와, 돌잔치와 혼례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 돌상차림에서 음식대행업체의 필요성에 관한 항목 등 6항목과 출생의례의 필요성과 음식, 결혼에 대한 의지, 혼례과정과 혼례상 진설에 대한 인지도, 폐백음식과 선물에 대한 인지도 등의 7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제례의식을 조사한 Kim JG등(2003)의 조사와 Yoon US(1995)의 조사를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사항과 5점평점 항목 사이의 관계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91	36.5
	Female	333	63.5
Age(yr)	19-21	235	44.8
	22-24	178	33.9
	25-28	61	11.6
Hometown	Seoul	252	48.1
	Gyeonggido	95	18.1
	Chungcheongdo	36	6.9
	Gyeongsangdo	84	16.0
	Gangwondo	8	1.5
	Jeollado	46	8.8
	Jejudo	3	0.6
Major	liberal art	91	17.4
	Engineering	55	10.5
	science	18	3.4
	social science	80	15.3
	Management & economics	139	26.5
	Law	31	5.9
	Art & gymnastics	110	21.0
Family number (no.)	2	3	0.6
	3	47	9.0
	4	360	68.7
	5	98	18.7
	6<	16	3.1
Parent's religion	Buddhism	121	23.1
	Christian	145	27.7
	Roman catholicism	74	14.1
	Nothing	182	34.7
	Others	2	0.4
my religion	Buddhism	66	12.6
	Christian	146	27.9
	Roman catholicism	64	12.2
	Nothing	246	47.0
	Others	2	0.4
Parent's work	Public official , teacher	78	14.9
	Businessman, manufacturing, freelancer	247	47.1
	Office worker, bank	121	23.1
	Professional	27	5.2
	Agriculture, fishing, livestock	15	2.9
	Clergyman	7	1.3
	Unemployment	29	5.5
Brother & sister	1	26	5.0
	2	394	75.2
	3	93	17.7
	4<	11	2.2
Children's order	First	276	52.7
	Second	203	38.7
	Third	40	7.6
	Fourth<	5	1.0
Total		524	100.0

사대상자는 남자 191명(36.5%)과 여자 333명(63.5%)으로 총 524명이었고 나이는 19세에서 21세 사이가 235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지는 서울(48.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18.1%), 경상도(16.0%) 등의 순이었다. 부모님의 종교는 무교(34.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27.7%), 불교(23.1%), 가톨릭교(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본인의 종교는 과반수 정도가 무교(47.0%)였고 기독교(27.9%), 불교(12.6%), 가톨릭교(12.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을 포함한 현재의 가족 수는 4명(68.7%)이 대부분이었으며, 본인은 첫째와 둘째가 거의 대부분으로 본인을 포함한 형제의 수는 2명(75.2%)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반 정도가 자영업, 사업(47.1%)에 종사한다고 하였으며 사무원이나 은행원(23.1%), 공무원이나 교사(1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2. 출생의례와 혼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행하는 통과의례 중 출생과 관련된 의례를 치르는 것은 백일과 돌이므로 백일과 돌상과 음식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돌의 의미를 묻는 항목에서 299명(57.1%)의 학생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서라고 답하였고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비는 마음(18.5%)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17.2%)라고 답한 사람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수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답도 있었다. 백일이나 돌잔치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묻는 항목에는 248명(47.3%)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사치와 낭비를 고쳐야 한다(28.6%),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고(12.8%), 간소화되어야 한다(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혼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328명(62.6%)이 혼수예물을 들었고 혼례식의 과정(18.3%), 함을 받는 행사(13.8%), 폐백의식(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혼여행은 모든 학생들이 고칠 필요가 없는 혼례행사의 하나로 답하였다.

출생의례와 혼례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1~5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질문은 Table 3과 같다. 본인이 백일과 돌상에 올려지는 음식에 관해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38.4%)와 약간

모른다(26.1%), 약간 알고 있다(19%)고 답하였고 평균 3.31로 보통보다 약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백일과 돌에 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0명 이상의 학생이 백일이나 돌상 음식 대행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혼례의식은 대부분의 학생이 치르겠다고(77.1%) 하였고 혼례의식과정을 잘 안다고 한 사람과 잘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혼례상에 올려지는 음식에 관하여는 잘 안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폐백을 올리는 의식의 절차와 필요한 음식에 관하여는 55.7%가 잘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결혼식을 한국의 전통식으로 하겠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이다(44.5%)의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Kim SM(2001)의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전통

음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학생들의 94.4%가 전통 음식을 계승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Sim YJ 등(1999)의 미국 뉴욕 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한국 전통음식문화에 관한 의식조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차림은 생일(66.8%), 돌상(43.5%), 백일상(42.4%), 혼례 폐백상(21.4%), 제사상차림(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돌상에는 60%가 평소보다 음식을 더 준비하여 축하해 주었다고 답하였다. 결혼식의 폐백음식은 50.9%가 전문점에 맡긴다고 하였고 14%는 집에서 준비한다고 하였다.

###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통과의례의 인식 차이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일반사항에 따른 출생의례 및 혼례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Recognition of birth rites and marriage ceremony

Variables	Category	N(%)
Meaning of the first birthday	Others do this ceremony	16( 3.0)
	For special memory	299(57.1)
	For believing in that child are excellent person	97(18.5)
	For family's harmony	90(17.2)
	No special meaning	22( 4.2)
I did one hundredth birthday rites	Yes	436(83.2)
I did the first birthday rites	Yes	496(94.7)
Things to change birth rites	Nothing	248(47.3)
	Extravagance, waste	150(28.6)
	Simplification	49( 9.4)
	Formality	67(12.8)
	Entertainment, excessive, alcohol(adult)	10( 1.9)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birth rites foods	Yes	421(80.3)
Things to modify in wedding ceremony	Ceremony process	96(18.3)
	Wedding ceremony gifts	328(62.6)
	All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	30( 5.7)
	Honeymoon	0( 0)
	Wedding presents of bridegroom(Ham)	70(13.4)

Table 3. Mean score of attitude towards birth rites and wedding ceremony

Variables <sup>†</sup>	N(%)					Mean±SD
	1	2	3	4	5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10( 1.9)	102(19.5)	201(38.4)	137(26.1)	74(14.1)	3.31±1.00
Needless of the birth rites	6( 1.1)	48( 9.2)	127(24.2)	209(39.9)	134(25.6)	3.80±0.96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261(49.8)	143(27.3)	82(15.6)	28( 5.3)	10( 1.9)	1.82±1.00
Knowledge of processes in wedding ceremony	26( 5.0)	130(24.8)	241(46.0)	101(19.3)	26( 5.0)	2.95±0.91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6( 1.1)	70(13.3)	203(38.7)	183(34.9)	62(11.8)	3.43±0.90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10( 1.9)	62(11.8)	160(30.5)	207(39.5)	85(16.2)	3.56±0.96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20( 3.8)	38( 7.25)	233(44.5)	181(34.5)	52( 9.9)	3.40±0.90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1) 출생지에 따른 통과의례의 인식

각 표의 수치는 각 항목에 대답한 점수의 평균값(각 항목의 전체평균값은 Table 3을 참고)을 나타내며 이것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백일과 돌상에 올리는 음식에 대해 잘 아는지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출생지인 사람은 그 외 지역과는 다르게 그렇다고 답하였다(F=1.95, p<0.05). 돌과 백일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도 강원도가 출생지인 사람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혼례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는 F검정의 결과는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폐백의식의 과정과 음식을 잘 알고 있

느냐는 질문에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F=1.96, p<0.05).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출생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라 제례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Kim JG 등(2003)의 보고와는 대조적이었는데 이것은 제례의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나이에 따른 통과의례의 인식

학생들의 나이별에 따른 백일, 돌, 혼례에 대한 5점 평점법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나이에 따라 백일과 돌에 대한 인식과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혼례에 대한 인식차이는 항목

Table 4.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hometown of students

Variables <sup>†</sup>	Hometown							F value
	Seoul (N=252)	Gyeonggido (N=92)	Chungcheongdo (N=36)	Gyeongsangdo (N=84)	Gangwondo (N=8)	Jeollado (N=46)	Jejudo (N=3)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37±1.02 <sup>b</sup>	3.30±0.94 <sup>b</sup>	3.44±0.32 <sup>b</sup>	3.40±1.07 <sup>b</sup>	2.25±0.88 <sup>a</sup>	2.98±0.71 <sup>b</sup>	3.00±0.00 <sup>b</sup>	1.95 <sup>*</sup>
Needless of the birth rites	3.80±0.96	3.96±0.82	3.83±1.16	3.83±1.01	2.7±1.16	3.53±0.85	3.50±0.57	1.74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90±1.04	1.64±0.81	1.44±0.70	1.90±1.13	2.00±0.75	1.91±1.15	1.50±0.57	1.52
Knowledge of processess in wedding ceremony	3.01±0.94	2.83±0.86	3.06±1.01	3.02±1.08	2.50±0.92	2.69±0.73	3.00±0.00	1.17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46±0.90	3.40±0.89	3.78±0.79	3.40±0.86	2.75±0.46	3.20±0.91	3.50±0.57	1.47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59±1.00 <sup>b</sup>	3.57±0.94 <sup>b</sup>	3.89±0.76 <sup>b</sup>	3.52±0.91 <sup>b</sup>	2.75±0.46 <sup>a</sup>	3.33±0.81 <sup>ab</sup>	4.00±0.00 <sup>b</sup>	1.96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44±0.88	3.40±0.84	3.06±1.07	3.43±0.91	3.50±1.19	3.31±0.81	3.50±0.57	1.56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5.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age

Variables <sup>†</sup>	Age(Yr)			F value
	19-21 (N=235)	22-24 (N=178)	25-28 (N=61)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30±0.97	3.33±1.00	3.31±1.06	1.85
Needless of the birth rites	3.77±0.96	3.83±0.92	3.80±1.03	0.93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75±0.88 <sup>a</sup>	2.01±1.11 <sup>b</sup>	1.69±1.02 <sup>a</sup>	2.3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s in wedding ceremony	3.00±0.88 <sup>b</sup>	3.08±0.94 <sup>b</sup>	2.59±0.84 <sup>a</sup>	2.96 <sup>**</sup>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45±0.90 <sup>a</sup>	3.46±0.92 <sup>b</sup>	3.35±0.86 <sup>a</sup>	2.20 <sup>*</sup>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68±0.93 <sup>b</sup>	3.47±0.99 <sup>a</sup>	3.47±0.96 <sup>a</sup>	3.75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30±0.88	3.51±0.83	3.43±1.02	0.91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혼례절차 중 폐백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75, p<0.01$ ), 25세 이상에서는 혼례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6, p<0.01$ ). 그러나 결혼식은 반드시 올리겠다는 항목과 혼례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p<0.05$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종교, 본인 종교에 따른 통과의례의 인식

종교에 따른 출생의례와 혼례의 의식차이는 Table 6, 7과 같다. 학생의 종교가 불교인 경우 출생의례음식을 잘 안다고 답하였고 백일과 돌이 필요한 의식이라고 답하였는데 다른 종교와는 약간의 점수 차이를 나타내어 백일과 돌에 진설되는 음식에 대해 부모의 종교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4.14,$

$p<0.05$ ) 불교의 경우 가장 잘 알며 다음은 천주교를 믿는 부모의 학생 순이었다. 결혼식을 꼭 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가 가장 높고 다음은 불교 순으로 나타났다( $F=3.24, P<0.05$ ). 단지 신부가 신랑의 부모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폐백의식에 필요한 음식과 의식절차에 대하여는 F검정의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의례의 필요성에 대해 기타종교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른 종교에 비해 인원이 아주 작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돌과 백일의 음식을 잘 아는가에 학생의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여( $F=2.51, p<0.05$ ) 불교, 천주교, 무교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출생의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차이를 보여( $F=2.57, p<0.05$ ) 기독교, 무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외는 혼례에 대한 인식차이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Table 6.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parents' religion

Variables <sup>†</sup>	Parents' religion					F value
	Buddhism (N=121)	Christian (N=145)	Roman catholicism (N=74)	Nothing (N=182)	Others (N=2)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08±1.05 <sup>a</sup>	3.53±0.97 <sup>a</sup>	3.16±0.92 <sup>a</sup>	3.34±0.98 <sup>a</sup>	4.00±0.00 <sup>b</sup>	4.14 <sup>**</sup>
Needless of the birth rites	3.92±0.92	3.74±0.86	3.81±0.93	3.75±1.04	5.00±0.00	1.50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78±1.02 <sup>a</sup>	1.62±0.87 <sup>a</sup>	2.08±1.13 <sup>b</sup>	1.91±1.01 <sup>a</sup>	2.00±0.00 <sup>a</sup>	3.24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s in wedding ceremony	2.95±0.73	3.01±0.85	3.16±0.95	2.80±1.03	3.00±0.00	2.38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35±0.79	3.42±0.84	3.43±0.95	3.48±1.00	4.00±0.00	0.59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52±0.99	3.63±0.92	3.51±0.89	3.58±1.00	2.00±0.00	1.64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30±0.88	3.48±0.91	3.49±0.79	3.36±0.94	3.00±0.00	0.99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  $p<0.01$ , \*\*\*  $p<0.001$

Table 7.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student's religion

Variables <sup>†</sup>	Students' religion					F value
	Buddhism (N=66)	Christian (N=146)	Roman catholicism (N=64)	Nothing (N=246)	Others (N=2)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2.97±1.09 <sup>a</sup>	3.38±0.91 <sup>ab</sup>	3.31±0.88 <sup>ab</sup>	3.36±1.03 <sup>ab</sup>	4.00±0.00 <sup>b</sup>	2.51 <sup>†</sup>
Needless of the birth rites	4.06±0.95 <sup>b</sup>	3.73±0.89 <sup>a</sup>	3.88±0.96 <sup>a</sup>	3.74±0.98 <sup>a</sup>	5.00±0.00 <sup>a</sup>	2.57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67±0.98 <sup>a</sup>	1.64±0.83 <sup>a</sup>	2.00±0.97 <sup>b</sup>	1.93±1.09 <sup>a</sup>	2.00±0.00 <sup>b</sup>	2.77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s in wedding ceremony	3.03±0.72	2.93±0.85	3.16±0.97	2.88±0.97	3.00±0.00	1.34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36±0.85	3.38±0.82	3.44±1.00	3.47±0.94	4.00±0.00	0.51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55±0.96	3.55±0.91	3.56±0.94	3.59±0.99	2.00±0.00	1.40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15±1.02	3.40±0.93	3.44±0.79	3.46±0.86	3.00±0.00	1.62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  $p<0.01$ , \*\*\*  $p<0.001$

않았다. 이 결과는 종교에 따라 제례의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Kim JG 등(2003)의 연구와는 달리 혼례나 돌, 백일에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4) 부모의 직업, 학생의 전공에 따른 통과의례의 인식

부모의 직업, 학생의 전공에 따른 통과의례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8, 9와 같다. 돌과 백일 음식에 대해 부모가 전문직종사자인 경우는 잘 안다고 답한 반면 종교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F=2.56, p<0.01). 부모의 직업이 종교인 인 경우 백일, 돌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무직의 경우는 보통이다 는 점수를 보여 다

**Table 8.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parents' work**

Variables <sup>†</sup>	Parents' work							F value
	Public official, teacher (N=78)	Businessman, manufacturing, freelancer (N=247)	Office worker, bank (N=121)	Professional (N=27)	Agriculture, fishing, livestock (N=15)	Clergyman (N=7)	Unemployment (N=29)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15±1.08 <sup>ab</sup>	3.38±1.01 <sup>ab</sup>	3.31±0.97 <sup>ab</sup>	2.85±0.67 <sup>a</sup>	3.14±0.84 <sup>ab</sup>	4.00±0.75 <sup>c</sup>	3.53±1.20 <sup>bc</sup>	2.56 <sup>**</sup>
Needless of the birth rites	3.67±1.06 <sup>abc</sup>	3.79±0.85 <sup>abc</sup>	4.01±0.91 <sup>bc</sup>	3.62±1.02 <sup>ab</sup>	4.00±0.78 <sup>bc</sup>	4.25±0.88 <sup>c</sup>	3.33±0.95 <sup>a</sup>	2.24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2.03±1.23 <sup>b</sup>	1.91±0.96 <sup>b</sup>	1.60±0.91 <sup>a</sup>	1.92±0.74 <sup>b</sup>	1.50±0.42 <sup>a</sup>	1.75±0.88 <sup>a</sup>	1.53±0.83 <sup>a</sup>	2.87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s in wedding ceremony	2.92±0.86	3.01±0.99	2.90±0.91	2.69±0.73	2.57±0.51	3.25±0.88	3.00±0.66	0.81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44±0.89	3.41±0.87	3.50±0.86	3.31±0.73	3.29±1.07	3.50±0.92	3.47±0.98	1.35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62±0.91	3.60±0.90	3.53±0.99	3.62±0.67	3.21±1.07	3.00±1.69	3.53±0.92	1.17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28±1.08 <sup>ab</sup>	3.40±0.82 <sup>ab</sup>	3.47±0.90 <sup>ab</sup>	3.23±0.81 <sup>ab</sup>	3.00±1.03 <sup>a</sup>	3.50±0.53 <sup>ab</sup>	3.67±0.63 <sup>b</sup>	2.06 <sup>*</sup>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9.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student's major**

Variables <sup>†</sup>	Students' major							F value
	Liberal art (N=91)	Engineering (N=55)	Science (N=18)	Social science (N=80)	Management& economics (N=139)	Law (N=31)	Art & gymnastics (N=110)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24±1.01 <sup>a</sup>	3.48±0.76 <sup>a</sup>	4.00±0.48 <sup>b</sup>	3.18±1.02 <sup>a</sup>	3.38±1.08 <sup>a</sup>	3.27±0.78 <sup>a</sup>	3.21±0.75 <sup>a</sup>	3.80 <sup>***</sup>
Needless of the birth rites	3.76±1.03	3.67±1.04	3.56±0.85	3.83±0.89	3.87±1.05	4.07±0.78	3.75±0.74	1.63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83±0.94 <sup>ab</sup>	1.85±0.82 <sup>ab</sup>	1.67±0.97 <sup>ab</sup>	1.78±1.06 <sup>ab</sup>	1.62±0.93 <sup>a</sup>	1.87±1.04 <sup>ab</sup>	2.11±0.98 <sup>b</sup>	3.39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 in wedding ceremony	2.98±0.94 <sup>ab</sup>	2.89±0.96 <sup>a</sup>	3.33±0.84 <sup>b</sup>	3.05±1.05 <sup>ab</sup>	2.87±0.96 <sup>a</sup>	2.73±0.69 <sup>a</sup>	2.96±0.72 <sup>ab</sup>	3.02 <sup>***</sup>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39±0.85 <sup>a</sup>	3.41±0.94 <sup>a</sup>	4.00±0.68 <sup>b</sup>	3.45±0.92 <sup>a</sup>	3.42±0.95 <sup>a</sup>	3.53±0.81 <sup>a</sup>	3.36±0.75 <sup>a</sup>	2.84 <sup>***</sup>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41±0.92 <sup>a</sup>	3.74±0.96 <sup>ab</sup>	4.00±0.68 <sup>b</sup>	3.50±1.00 <sup>a</sup>	3.61±1.07 <sup>ab</sup>	3.67±0.88 <sup>ab</sup>	3.50±0.74 <sup>a</sup>	2.76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43±0.77	3.48±0.82	3.00±0.68	3.33±0.93	3.38±1.05	3.47±1.16	3.45±0.60	1.67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른 직업과는 차이를 보였다(F=2.24, p<0.01). 혼례식을 꼭 하겠다는 항목(F=2.87, P<0.01)과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항목(F=2.06, P<0.05)에서도 부모의 직업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하겠다는 항목은 부모의 직업이 1차 산업의 종사자, 전문직, 공직자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혼례의식절차와 혼례음식, 폐백절차에 대한 인식차이는 부모의 직업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전공과 통과의례의 관계를 보면 출생의례 의식에 대해 자연과학도들은 다른 전공분야에 비해 관심이 없었고 다른 전공에 비해 필요치 않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F=3.80, p<0.001). 대부분의 전공에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하였으나 예, 체능계 전공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3.39, p<0.001). 경영, 경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자연과학도에 비해 혼례의 과정(F=3.02, P<0.001), 혼례음식을 알고 있는 경향(F=2.84, P<0.001)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전공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연과학도들은 혼례절차도 잘 모른다고 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혼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생의 전공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Yoon US(1995)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와 제주도 일부대학생들의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는 남녀 및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76.11%가 명절음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명절 음식을 차리는 현황으로는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 가족 수, 형제수에 따른 통과의례의 인식

가족 수에 따른 통과의례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10과 같다. 가족수가 10명인 가족은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설명에서는 제외하였다. 가족수에 따라 출생의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혼례식을 하겠다는 의지(F=4.01,

Table 10.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family number

Variables <sup>†</sup>	Family number					F value
	2(N=3)	3(N=47)	4(N=360)	5(N=98)	6<(N=16)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2.00±0.00	3.41±1.30	3.37±0.98	3.17±0.99	3.11±0.58	1.84
Needless of the birth rites	5.00±0.00	3.88±0.97	3.81±0.95	3.67±0.94	4.22±1.06	2.13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3.00±0.00 <sup>b</sup>	2.06±1.32 <sup>ab</sup>	1.82±1.00 <sup>ab</sup>	1.84±0.92 <sup>ab</sup>	1.00±0.00 <sup>a</sup>	4.01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 in wedding ceremony	2.00±0.00 <sup>a</sup>	3.24±1.13 <sup>b</sup>	3.00±0.87 <sup>ab</sup>	2.86±0.90 <sup>ab</sup>	2.00±0.68 <sup>a</sup>	6.24 <sup>***</sup>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2.00±0.00 <sup>a</sup>	3.82±0.93 <sup>c</sup>	3.45±0.90 <sup>bc</sup>	3.38±0.87 <sup>bc</sup>	2.78±0.64 <sup>ab</sup>	4.60 <sup>***</sup>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2.00±0.00 <sup>a</sup>	3.94±0.81 <sup>c</sup>	3.58±0.93 <sup>bc</sup>	3.56±0.95 <sup>bc</sup>	2.67±1.18 <sup>ab</sup>	6.45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00±0.00	3.41±1.04	3.38±0.86	3.39±0.93	3.67±1.18	0.60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11.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brother & sister number

Variables <sup>†</sup>	Brother& sister number				F value
	1(N=26)	2(N=394)	3(N=93)	4<(N=11)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85±1.25 <sup>b</sup>	3.32±1.00 <sup>ab</sup>	3.20±0.93 <sup>ab</sup>	2.80±0.42 <sup>a</sup>	3.17 <sup>*</sup>
Needless of the birth rites	4.00±0.98 <sup>ab</sup>	3.79±0.97 <sup>a</sup>	3.70±0.90 <sup>a</sup>	4.80±0.42 <sup>b</sup>	3.73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62±1.02	1.88±1.05	1.75±0.81	1.00±0.00	3.11
Knowledge of processes in wedding ceremony	3.38±1.23 <sup>c</sup>	2.97±0.88 <sup>b</sup>	2.84±0.88 <sup>b</sup>	1.80±0.42 <sup>a</sup>	6.82 <sup>***</sup>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85±1.04 <sup>b</sup>	3.45±0.90 <sup>b</sup>	3.34±0.83 <sup>b</sup>	2.40±0.51 <sup>a</sup>	5.33 <sup>***</sup>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4.00±1.05 <sup>b</sup>	3.60±0.92 <sup>b</sup>	3.48±0.93 <sup>b</sup>	1.80±0.42 <sup>a</sup>	12.11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62±1.23	3.39±0.85	3.39±0.92	3.20±1.39	0.74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12.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children's order

Variables <sup>*</sup>	Children's order				F value
	first(N=276)	second(N=203)	third(N=40)	fourth(N=5)	
Knowledge of food in birth rites	3.27±1.03	3.38±0.98	3.30±0.91	3.00±0.00	0.67
Needless of the birth rites	3.84±0.92 <sup>a</sup>	3.69±1.03 <sup>a</sup>	3.95±0.74 <sup>ab</sup>	5.00±0.00 <sup>b</sup>	2.93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1.80±0.96 <sup>a</sup>	1.92±1.08 <sup>b</sup>	1.55±0.81 <sup>a</sup>	1.00±0.00 <sup>a</sup>	2.65 <sup>~</sup>
Knowledge of processes in wedding ceremony	3.03±0.94 <sup>c</sup>	2.93±0.86 <sup>b</sup>	2.55±0.81 <sup>b</sup>	1.50±0.57 <sup>a</sup>	5.81 <sup>***</sup>
Knowledge of foods in wedding ceremony	3.49±0.93	3.40±0.90	3.25±0.63	2.50±0.57	2.07
Knowledge of gifts and foods offered by the bride(Paebak)	3.55±0.96 <sup>b</sup>	3.63±0.96 <sup>b</sup>	3.40±0.81 <sup>b</sup>	2.00±0.00 <sup>a</sup>	4.43 <sup>**</sup>
Willness to do wedding ceremony in Korean style	3.32±0.89	3.50±0.87	3.30±1.01	4.00±1.15	2.04

<sup>\*</sup>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SD

<sup>a-d</sup>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up>\*</sup> p<0.05, <sup>\*\*</sup> p<0.01, <sup>\*\*\*</sup> p<0.001

P<0.001), 혼례절차의 인지도(F=6.24, P<0.001), 혼례상 진설음식(F=4.60, P<0.001), 폐백 절차(F=6.45, P<0.001)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가 많을수록 출생의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백일이나 돌상은 필요하다는 경향이 컸다(Table 11).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형제수가 많을수록 혼례의 음식진설(F=6.82, P<0.001)과 혼례과정(F=6.82, P<0.001), 폐백의례(F=12.11, P<0.001)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전공과 가족수, 형제수가 혼례에 대한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형제 중 몇째인지에 따른 통과의례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12와 같다.

몇째인지와 백일과 돌의 통과의례 관계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례의 경우 혼례의식 절차와 혼례의식 인지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F=5.81, p<0.001) 폐백의식에도 인지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F=4.43, p<0.01) 여러 부분에서 셋째가 첫째나 둘째보다 혼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통과의례 중 백일, 돌과 같은 출생의례와 혼례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의례에 사용되는 음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를 살펴본다 식문화를 전수하고 좋은 점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총 524명의 학생 중 돌의 의미는 학생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비는 마음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라고 답한 사람이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보아 아이와 가족을 위하는 의미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혼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328명이 혼수에물을, 다음으로 혼례식의 과정을, 함을 받는 행사와 폐백의식 순으로 고쳐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학생들의 건전한 결혼문화에 대한 바람을 알 수 있었다.

혼례음식과 폐백의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혼례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2. 백일과 돌상에 올리는 음식과 혼례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는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폐백의식의 과정과 음식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른다고 대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혼례절차 중 폐백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세 이상에서는 혼례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과의례란 용어의 뜻이 인생의 주기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백일과 돌에 진설되는 음식에 대해 부모의 종교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종교는 돌과 백일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혼례에 대한 인식차이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혼례 문화에 대한 종교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돌과 백일 음식에 대해 부모의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혼례의식절차와 혼례음식, 폐백절차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직업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은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에 대해서는 인식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가족수가 많을수록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의지와 혼례절차, 혼례상 진설음식, 폐백 절차에 대해 유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가 많을수록 출생의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백일이나 돌상은 필요하다는 경향이 컸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형제수가 많을수록 혼례의 음식진설과 혼례과정, 폐백의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형제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깨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통과의례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인지도의 차이를 잘 융화시켜 우리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과의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참고문헌

- 김기숙, 김미정, 안숙자, 이숙영, 한경선. 1999. 식품과 음식문화. 교문사. 서울. pp152-153
- Hong NY, Lee EJ, Park SH. 2002.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Korean wedding culture in the 20th century. Korean Human Economics Assoc 40(11) : 141-156
- Jung BM. 2005. Comparison on the ritual food of Yeosu and Pusan area. Korean J Food Cookery Sci 21(3) : 271-282
- Kim IO, Ahn HS. 2003. Th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and actual services of ancestral rite. Korean Human Economics Assoc 41(3):113-129
- Kim JG, Kim JM, Chang SH. 2003.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ritual ceremony.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3):145-154
- Kim JM, Chang SH, Kim JG. 2003. Research on the comparison on the ritual food of Gyeonggi and Gyung-sangbuk-do province. Korean J Food Cookery Sci 19(3) : 562-570
- Kim SM. 2001. A study on the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Kyung-book area on the traditional foods(I). Korean J Food Cookery Sci 17(2) : 139-148
- Lee HG, Oh MY. 1995. Consciousness, knowledge and food preferen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3(4) : 65-87
- Sim YJ, Kim JS. 1998. Study of the Korean Americans housewives' knowledge of Korean festival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14(2) : 148-158
- Sim YJ, Kim JS, Chun HJ. 1999. The knowledge of Korean ceremony foods and table setting of Korean American housewives in the New York/New Jersey area. Korean J Food Cookery Sci 15(2) : 146-157
- Yoon US. 1995. A study on the knowledge on the Korean festival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11(2) : 140-144
- Yoon US, Song TH. 1995. A study of the consciousness on the Korean folk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11(2) : 145-152

(2007년 1월 23일 접수, 2007년 2월 15일 채택)